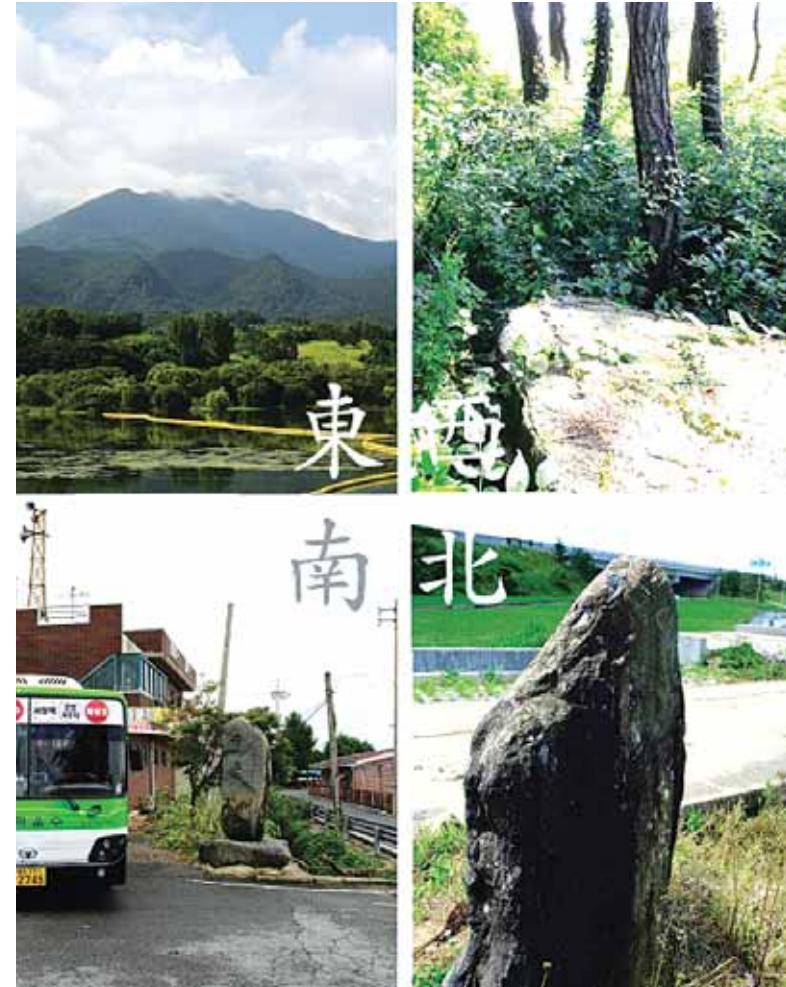


문화공간·역사·인물 숨겨진 매력...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Ⅲ' 출간

'東西南北' 광주 네 군데 끝 지점엔...



문화관광탐험대가 이번엔 광주의 동, 서, 남, 북 끝 지점을 찾아나섰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동쪽 끝지점인 북구 총효동 우성마을, 서쪽 끝지점인 광산구 양동 석암마을, 북쪽 끝지점인 북구 용강동 741번지 들판, 남쪽 끝지점인 남구 구소동이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다', '계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것이 낫다', '죽으면 썩을 삽신이나 아끼지 말아라'... 삼면 고영두(1930~2006) 선생의 인생철학이다.

제봉 고경명(1533~1592)의 후손으로 대촌면 이장동에서 태어난 삼면 선생은 많은 후원금이나 성금을 내면서도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일군 부지였음에도 죽는 순간까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에게 향하던 인정은 변함없었고, 소박했던 그의 정신은 남은 이들에게 철학자 교훈이 됐다. 알려지지 않았던 삼면 선생의 이야기를 그의 부인 정영숙 여사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서 열람

25~29일 결과전시회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의 동, 서, 남, 북 끝 지점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땅을 파면 모두 돌이 나온다고 해서 이를 지어진 광산구 양동 석암마을은 광주의 서쪽 끝 지점, 주민들이 벼농사·하우스농사를 짓으며 생활하고 있는 구소동은 광주의 남쪽 끝 지점이다. 광주에 30년 가까이 뿌리내리고 살아왔던 이가 직접 발품을 팔아 동, 서, 남, 북 끝 지점을 찾아 나섰다.

문화관광탐험대가 지난 1년동안 문화 현장과 공간, 역사, 문화인물 등 광주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기록한 광주탐험 가이드북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Ⅲ'가 나왔다.

학생, 주부,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모임인 문화관광탐험대 3기 대원들은 3월부터 자료를 찾고 인터뷰를 하면서 광주의 숨은 명인·명품·명소를 발

굴해 왔다.

이들은 삼면 고영두 선생, 국장 김창환 선생, 승무 이수자 박은하 명인 등 광주의 명인들과 화암마을 당산나무, 광주 사람들의 생명이었던 시암 이야기 광주의 우물, 광주의 네 군데 끝지점, 광주 대표고택 고원희 가옥 등 자연·공간들을 찾아냈다.

또 광주의 게스트하우스, 말바우시장 매일팥죽, 전통찻집 예사랑 등 명소와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 축제, 한국 재즈밴드 1세대 '올댓재즈' 등 광주의 명품들을 소개한다.

눈에 띄는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편안하고 안전한 잠자리와 주인장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광주는 타 관광지보다 게스트하우스의 수가 현격히 적지만 최근 늘고 있는 추세다.

양껏 펴주는 아침밥과 깔끔하고 빠른 정보력까지 3박자를 갖춘 내방동 남도게스트하우스, 이모집에 방문한 듯한 부담없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두암동 '씨엠프레', 세계 36개국 여행 경험을 토대로 만든 '한국인의 일상' 체험 공간 생존동 '페드로'를 찾아냈다.

310쪽 분량의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Ⅲ'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재단발간물 코너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25~29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문화관광탐험대의 1년 활동을 담은 '제3회 문화관광탐험대 결과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각각의 인물과 장소 등을 취재하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25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제즈밴드 '올댓재즈'와 대금연주 등 공연도 열린다. 문의 062-670-7453. /이보람기자 boram@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영신강 유역 고대문화 한 눈에... 내년 2월16일까지 특별전시



지난 22일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을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신발, 은제 관식 등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내년 2월16일까지 보물 제1509호 허목 초상 등 나주 관련 문화재 자료 200여점을 특별 전시한다.

한편, 국립나주박물관 개관식에는 박준영 전남도지사, 배기운 국회의원,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임성훈 나주시장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kwangju.co.kr

"피아노 창작곡 소개합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내일 독주곡 연주회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피아노 그룹들은 보통 기존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연주회 레퍼토리를 짠다. 그런 점에서 정기연주회를 위해 전국 대상 창작 피아노곡 공모를 진행하는 광주피아노아카데미의 행보는 의미있다.

1990년 창립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한정숙·호남신학대 교수·시진)는 매년 2차례 정기 연주회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창작 피아노곡을 공모, 연주회를 갖고 있다.

좀처럼 발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작곡가들에게도, 낯선 곡을 연주하며 새로운 테크닉과 감성을 배워가는 피아니스트에게도 소중한 연주회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창작피아노 독주곡 연주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

된다.

이번에 연주되는 작품은 동화 '신데렐라'에서 영감을 얻은 'Pumpkin time' (남정훈), '피아노를 위한 바다'를 꼽구다(박지은),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전주곡'(양민경), 'Rainbow sea'(전선교) 등 모두 8작품이다.

연주자는 피아노 아카데미 회원인 강효미, 강지혜, 이근영, 함지연, 주소영, 이현주, 성지영, 박제희씨다. 음악회 후에는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문의 010-2012-8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 오늘 문예회관

음악을 통해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강영식 장로, 광주서남교회)이 25일 오후 7시30분에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 110여명의 단원들은 '예배합니디'를 시작으로 '주님 만날 준비 됐느냐', '주의 자녀들아 노래하라', '너는 잔치 예복 준비되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원 해', '사랑이 예오셨네' 등 9곡을 선보인다.

또 남성 4중창단이 '평화의 기도', '영광의 주님' 등 2곡을, 단원 부인들과 함께하는 가족합창단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등을 들려준다.



광주 지역 73개 교회 장로 107명으로 구성된 광주장로찬양단은 지난 1992년 창단됐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미국, 호주, 중국, 독일, 일본, 싱가폴 등 17개국을 방문해 해외연주회를 열었다. 문의 010-3624-97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시립미술관, 26일 이태호 교수 초청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이태호(명지대 문화예대학원장·사진)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초대해 2013 상록인문강좌 '인문학으로 문화 읽기' 마지막 강좌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남도미술과 문화에 큰 영향을 준 다산 정약용과 주사 김정희의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와 말기의 회화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흥의대와 동대학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이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남대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613-7132. /김경인기자 kki@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 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동스케이프 SPACE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www.hong79.com

☎ 1899-0240



헤드기능 5개 코너소파 195만원 | 라콜라이너 2개 +헤드기능 3개 |

5인 이태리 무광대리석 식탁 195만원 |

앤틱식탁 15종류